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호 [무제 제25890호] 주제 107(2018)년 1월 16일(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새날》신문을 창간하신 9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날》신문을 창간하신 90돐 기념보고회가 15일 평안남도에서 진행되었다.



평화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기념보고회 최희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용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신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날》신문을 창간하신 9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용대와 함께 청춘을 앞장서 빛내이며 당이 부르는 어떤 길든 초소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영웅적인화환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온 나라가 청년단으로 혼성있게 하기 위한 위대한 전투, 출전선 활동은 과감히 벌려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출중한 지략과 탐력을 지니신 김정은최고사령관》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 특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관》, 《출중한 지략과 탐력을 지니신 김정은최고사령관》 등의 제목으로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자 강 도 사 진 전 략 회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3 대 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척후병, 기수가 되자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향해제철련기업소 3 대 혁명소조원들

나라의 굴지의 철의 거지 창...

향해제철련기업소 3 대 혁명소조원들

목표는 높고, 실천은 과감하게

2. 8 직동청년탄광 3 대 혁명소조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기된 때면 소조원들은 국가과 학업에서의 면검도 주저없이 다나오곤 하였다.

이러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이 개막되었다.

나라의 굴지의 철의 거지 창...

향해제철련기업소 3 대 혁명소조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기된 때면 소조원들은 국가과 학업에서의 면검도 주저없이 다나오곤 하였다.

나라의 굴지의 철의 거지 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기된 때면 소조원들은 국가과 학업에서의 면검도 주저없이 다나오곤 하였다.

우리 예술단과전을 위한 북남실무회담 진행

【관문경 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예술단과전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15일 관문경에서 진행되었다.

관문경에서 진행된 북남실무회담

첫 전투의 나날에 있는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첫 전투의 나날에 있는 일

우리 예술단과전을 위한 북남실무회담 진행

첫 전투의 나날에 있는 일

